



기획재정부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 (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)	배포 일시	2023. 1. 31.(화) 08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장 박재진 (044-215-4510)
		담당자	서기관 성진규 (econ01@korea.kr) 사무관 서지현 (jjhopes@korea.kr)
	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	책임자	과장 이준범 (044-215-76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상현 (parksh20@korea.kr) 사무관 박정환 (goukaku@korea.kr)
	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장 권현철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 김보현 (abhkim@korea.kr) 사무관 이충녕 (young121@korea.kr)

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

□ 윤석열 대통령은 '23.1.31.(화) 09:30,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

-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, 과기·국방·농식품·산업·국토·중기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국조실장,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, 순방 성과 기업 관계자, 협회 등이 참석하였으며,
- ①한-UAE 투자·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, ②한-UAE 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하였음

<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요 >

- ▶ (일시·장소) '23.1.31.(화) 09:30~11:00,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
- ▶ (참석자) ①정부 : 경제부총리, 과기·국방·농식품·산업·국토·중기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국조실장, 환경부 차관 등
②공공기관 :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한국투자공사, KOTRA, 한국석유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 등
③업계 : 순방 성과 기업* 관계자, 금융투자협회, 무역협회 등
- * 두산에너빌리티, 넥센, NH투자증권, GS에너지, JKL파트너스, IMM인베스트먼트, 스틱인베스트먼트, 인라이트벤처스, 소프트뱅크벤처스, SK이노베이션, 삼성엔지니어링, 비즈로이엠, 한국항공우주, LG넥스원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그린텔주식회사, GS건설, 현대건설, 메가존클라우드, 야놀자, 메인정보시스템, 우듬지팜, 포미트, 농심, 넥스트온, 에이버츄얼 리트코 등

- 금번 회의에서는 이번 한-UAE 순방에 따른 300억불 규모의 UAE 국부펀드(무바달라 등) 투자유치, 61억불 이상의 에너지·방산·신산업 MOU 체결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,
 - 이번 성과가 가시적인 수출·투자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

[① 한-UAE 투자·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]

- 먼저 한·UAE 정상회담(1.15일, 아부다비)에서 발표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규모 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함
 - 정부는 한·UAE 양국이 상호 Win-Win하는 최고의 투자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, UAE의 對韓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「한-UAE 투자 협력 플랫폼」을 구축·운영하기로 결정함
- 한·UAE 투자협력 플랫폼은 국내적으로 민관합동의 지원체제인 ①UAE 투자협력 위원회와 ②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되며, 대외적으로는 UAE와의 상시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루어짐
 - 「UAE 투자협력 위원회」는 투자촉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체로서 경제부총리(위원장)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UAE의 對韓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며
 - 민간이 주도하는 「UAE 투자협력 네트워크」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업계·산업계 등이 함께 UAE의 투자수요 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됨
 - 아울러, 한국과 UAE간 원활한 투자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UAE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과 상시대화 채널 개설도 추진할 방침임
 - 먼저 ①경제부총리와 아부다비 행정청장(무바달라 CEO 겸임)간 「고위급 투자협력 대화」를 개설하고, ②무바달라 등 UAE 국부펀드와 기재부/ 산업은행,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「실무 투자협력 채널」도 신설됨
- 정부는 2월 중 UAE 투자협력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, 민간에서도 2월 중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개최하여, 한·UAE 투자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계획과 전략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

- 아울러, 금년 상반기 중 「한·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」를 개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IR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임
- 정부는 민간과 함께 이번 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新중동 봄을 실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원팀이 되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임

[② 한-UAE 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]

- 또한, 금번 UAE 순방에서 한-UAE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(16건 MOU),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(61억불+α 추산), 현지 수출시장 개척, 순방 후광효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위상 제고 등 “1석4조”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함
 - 금번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-UAE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·확대하여 UAE 측과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며, 전 부처가 “영업사원”으로서 ‘한-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(위원장: 산업부 장관)’ 등을 통해 성과 이행을 지원해나갈 예정임
 - 또한, 총 32건의 MOU 등을 협력 유형별로 프로젝트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, 유형별 소규모 ‘셔틀 경제협력단’을 신설하여 현장에서 MOU 등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·추진할 계획이며, 사우디 및 UAE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카타르, 오만 등 여타 중동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, 아프리카 등으로도 新중동 봄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
 - 안건 논의에 이어 회의 참석자 간 토론 시간이 이어졌음
 - 이날 토론에서는 각 분야 기업들의 구체적인 UAE 협력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, 향후 UAE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음
- ※ (별첨) 1. 한-UAE 투자·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
2. 한-UAE 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

< 안건별 담당자 >

[① 한-UAE 투자·금융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]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	책임자	과장 이준범 (044-215-76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상현 (parksh20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박정환 (goukaku@korea.kr)
<협조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장 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정태호 (tthhjung@korea.kr)
<협조>	산업은행 영업기획부	책임자	부장 안성진 (02-787-6933)
		담당자	팀장 이상용 (dracon38@kdb.co.kr)

[② 한-UAE 산업·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]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	책임자	과장 권현철 (044-203-5720)
		담당자	사무관 김보현 (abhkim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이충녕 (young121@korea.kr)
<협조>	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	책임자	과장 이준범 (044-215-7630)
		담당자	사무관 박상현 (parksh20@korea.kr)